

시키보 - 새로운 3가지 나노 가공 기술, 상품화

시키보는 소프트감을 좋게 해주는 테크노스 소프트(Technos soft), 형태 안정성을 높여 주는 테크노스 케어(Technos care), 발수·발유성을 높게 해주는 테크노스 가드(Technos guard)의 3가지 새로운 나노 가공 기술을 상품화하였다.

시키보는 그 동안 이미 발표된 7가지 가공 기술과 합하여 10가지 가공 기술을 나노 스타일(nano stayle) 시리즈로서 발표하였다. 나노 스타일 시리즈는 소프트, 프루프, 드라이, 케어의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소프트 그룹에는 새로 개발한 테크노스 소프트에 테크노스 케어가 들어간다. 테크노스 소프트는 나노 사이즈의 유연제를 시키보의 독자적인 처방으로 배합하여 섬유 분자 구조의 깊은 속까지 침투시키기 때문에 여러 번 세탁하여도 소프트함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테크노스 케어는 수지의 반응을 나노 영역에서 제어함으로써 순면 브로드(broad)에도 3.5급의 높은 W&W성(wash & wear property)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가공이다.

테크노스 가드는, 일반적인 발수·발유 가공이 천을 뻗뻗하게 만들기 쉬운데, 새로운 가공법으로 천의 태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발수·발유성을 좋게 할 수 있다. 시키보는 이 가공과 데세엘을 프루프의 그룹으로 묶어 발표하였다. 데세엘은 나노 영역에서 면 섬유를 개질함으로써, 면의 흡수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피부 지방에 의한 때를 섬유 속까지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는 가

공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나노 영역에서 개질함으로써 면 섬유 구조의 속 만을 소수성이 되게 하는 기술을 활용한 조건(早乾), 룸 드라이(room dry), 텐길 드라이를 드라이 그룹으로 묶었다. 또한, 케어 그룹에는 나노 사이즈의 가공제를 사용한 카운터 페인 P, 멜마, 슈퍼 아니엘 9 등이 들어 있다. ♣